

정조가 직접 가려뽑은 주자의 편지글

주자의 《주서백선》을 읽고

정 옥 자 |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규장각 관장

이번에 소장 연구자들이 우리말로 옮긴 《주서백선》은 정조대왕이 직접 편찬한 책을 저본을 삼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아쉬운 것은 만족할 만한 주자연구가 없어 이항로의 주석서를 참고했다는 점인데, 주자를 모르고서는 조선의 성리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 동양철학계가 되새겨봤으면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유교에 대한 담론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바다출판사)는 책처럼 극단적인 비판론이 있는가 하면, 유교미화론이 있고 유교자본주의, 유교민주주의처럼 유교를 현대화하려는 입장까지 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어찌 보면 아직도 유교가 우리와 밀접한 사상이어서 유교에 대한 애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근대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의 상당부분이 유교적인 전통과 교양이라는 점은 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려면 우리 사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전인 조선 후기 문화전성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성리학 이념을 국시로 해 이룩한 조선의 유교문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주자사상 이해는 당위의 문제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은 1794년 정조대왕이 주자의 편지 중에서 백편을 뽑아 편찬해 놓은 책이다. 정조대왕은 재임 중 4천여 책을 출간했는데, 그 가운데 1천3백여 책을 '어정(御定)'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편찬했다. 이 책도 그 가운데 하나니 당시의 중요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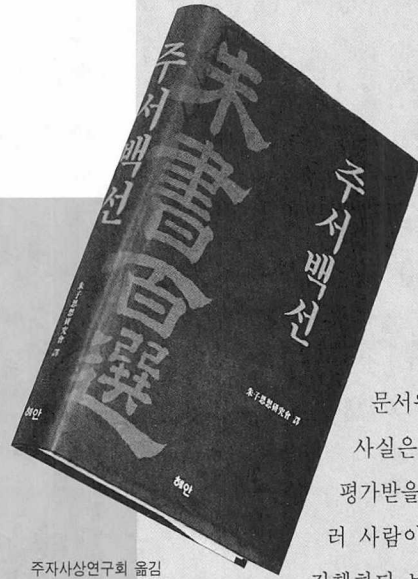
주자가 조선시대에 미친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송나라의 새로운

학문으로 남송의 주희(朱熹 : 1130~1200)가 문호를 성립한 성리학은 당시의 중국에서도 위학(僞學)으로 배척받을 정도로 신학문이었다. 성리학은 실천윤리이던 기존의 유학을 이기론(理氣論)을 축으로 하는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리는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성리학은 고려말 불교가 그 원래의 모습을 잃고 타락하자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됐고 이를 전공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념을 국시(國是)로 삼아 조선왕조를 건설했다. 조선전기에는 외래사상인 성리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세조의 왕위찬탈이나 수차례의 사화(士禍) 등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양란 후 조선 후기 사회는 오히려 주자성리학을 토착화시킨 조선성리학을 시대사상으로 삼아 사회를 재건하고 고유문화를 창달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전통시대인 조선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어받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요인들을 알기 위해서도 주자성리학은 원류로서 의미가 있다. 주자에 대한 이해는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역사나 철학을 전공하는 여덟 명의 젊은 학자들이 《어정주자백선》을 저본으로 해 번역본 《주서백선》(주자사상연구회, 예



주자사상연구회 옮김
혜안/A5신/510면/20,000원

문서원)을 출간했다는 사실은 그 시도 자체로 평가받을 만하다. 다만 여러 사람이 분담해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체나 각주

처리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고 번역도 각자의 역량이나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각 편지의 본문 앞에 해제를 적어 편지의 출전과 편지를 쓰게 된 역사적·개인적 배경을 밝히고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항로의 주석서 참고해

각주는 이항로(李恒老 : 1792~1868)의 주석서인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筭疑輯補)》를 참고해 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자들이 조선말기의 주석서를 참고로 해 각주를 달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석서란 논문이나 마찬가지다. 경전에 대한 나름의 해설서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주석이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한 주자 주석서가 아직 나오지 못했고 조선말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해 참고하게 된 것이라 이해되고, 이것이 현 동양철학계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더라도 이런 작업은 값진 일이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에 기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오역이 줄 있다 해도 크게 허물 삼을 일은 아니다. 계속 정진하기 바란다. ●